한마음 한뜻 한행을 하는 이 생활이 바로 부처님 법!

☞ 19면에서 계속

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한 번 실행을 해 보기보다는 부처님이 바깥에 있는 줄 알고 마음으로써 항상 끄달린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노스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 노스님이 몸이 약해지고 너무나 들피가 나서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시더랍니다. 그런데 한 제자는 계율을 지켜야 한다고 바둥바둥하고, 한 제자는 '내가 계율을 못 지켜서 만약에 벌레가 된다 하더라도 스님은 살려야겠다.' 하고 가서 지렁이를 캤습니다. 지렁이를 캐고 캐서 말갛게 씻어서 폭폭 고아서는 그걸 꼭 짜서 스님을 봉양을 했더니 스님이 건강하게 일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모든 것을 자기한테 그냥 놔 버렸습니다. 자기가 죽든 살든 어떻게 되든 그걸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무의법으로써 유의 법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행할 수 있는, 영체와 유체를 따로 보지 않고 같이 합쳐서 중용을 할 수 있는 그게 올바른 계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질로만 계율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물질 본위로만 나가야겠습니까?

사람사람이 마음 하나를 잘 먹어서 세상을 올바르게 해 놓을 수도 있고 마음을 잘못 먹어서 세상을 올바르지 못하게 해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내 몸으로부터 '나'를 이끌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몸을, 내 집을 망가뜨리는 이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있고 내 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라는 것이 부처라면, 바로 부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지 어째서 따로따로 있겠습니까? 상구보리 하면 하화중생이고 하화중생 하면 상구보리이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한생각에 의해 바로 몸속에 있는 그 생명체, 모습들이 다 한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넓고 건강하게 쓰면 바로 이 몸속에 있는 생명들도, 중생들도 다 같이 건져집니다. 내 한 생각을 잘하면 수십억 마리가 그냥 건져지지만 내 한 생각을 잘못하면 수십억 마리가 건져지지 못하는 거죠. 깨 하나를 심으면 그것이 수천 알의 깨가 되듯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사생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알로 나거나 태로 나거나 습한 데서 나거나 화해서 나는 것이 다 내 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나 외부나, 사생은 항상 지수화풍으로 뭉쳐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죄가 많고 왜 그렇게 못 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중생이 돼서 못 한다구요? 중생이라고 자기가 이름 지어 놓고 자기가 중생 노릇을 하는 거지, 누가 중생 노릇을 하랬나요? 부처 노릇을 하랬나요?

옛날에도 그런 점이 있었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라, 고려 때는 불교문화가 발전이 되었었는데 조선에 이르고부터 불도를 배척했습니다. 불도를 배척한 것이 불자를 배척한 것이고, 불자를 배척한 게 자기 마음을 배척한 겁니다. 자기 마음을 배척하고야 어찌…. 물질 본위로 살면서 항상 쫓고 쫓기고, 낮은 놈은 찌들리고 높은 놈은 누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사가 역사다웠습니까, 어디?

이렇게 해서 우리 자체가 어떤 역사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부처님을 모셔 놓은 법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누가 가는 걸 보면 붙들어다가 볼기를 때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뺏고 부수고…. 보고 듣는 게 이런 거였으니 이렇게 해 가지고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숭상하고 계발하고 물리가 트이게 해서, 즉 물질과학과 정신과학을 한데 합쳐서 우리 역사를 이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여러분은 마음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요새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뒤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뛰는 거 있죠? 요새도 가만히 보면 위태위태합니다. 왜 위태위태한가? 사람이 첫째, 세계를 보면서 우리 분단된 반쪽 조국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둘째는 요새 이렇게 모두 날뛰고 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될 사람이라면 그 사상이 어떤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정해서 찍으면 그뿐인 것을, 그렇지 않아도 분단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를 왜 부수고 때리고 난동을 부리느냐 말입니다.

싫으면 싫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찍으면 되지 도대체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누구 손해냐 이겁니다, 네? 도대체 이게 사람이 하는 노릇입니까? 이게 지식층들이 하는 얘깁니까, 어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향내가 나고 발 한 번 한 번 떼 놓는 그 움죽거림이 모두 향내가 나야죠. 그런데 얼마나 몰상식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민주화 민주화" 이렇게 말로만 합니까?

"스님은 어째서 정치 얘기를 합니까?" 이러시겠지만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한자리입니다, 부처님 자리고. 세계적으로 보거나 우주적으로 보거나 생명 없는 게 없어요. 생명 빼놓고 마음 빼놓은 게 어딨어요? 그러니 전체가 부처님 자리죠. 그러니 말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중이라고 왜 할 말을 못 해요? 중은 목탁만 두들겨야 중인가? 여러분과 다 같이, 우리가 일요일에는 쉬면서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생각을 내서 일을 나갑니다. 화요일에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 한행을 하고 있는 이 생활이 바로 부처님 법이에요. 그런데 말할 게 없어요?

월남전 때 어떤 사람이 월남에 싸우러 갔는데 편지를 보냈어요. "스님, 여기 와서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무기들을 이 지역 사람들에게 나눠 주면 이튿날이면 그 무기들이 다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는지를 검토해 보니까 그냥 전부 저쪽에 갖다 주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싸우는 겁니까? 이건 역성을 들어 줘도 한계가 있지 이렇게는 더 이상 못 합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돌아서야 될 지경입니다. 그러니 스님, 전 인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저는 죽는 걸 가리지 않으니까 그저 지뢰도 밟지 않고 그냥 그 사이 사이로 통과했고, 거기를 넘어갔다 왔는데도 모가지 안 잘리고 살아왔습니다. 아주 죽을 각오 하고 머리카락 베어 놓고 손톱 잘라 놓고선 그냥 악수하고 울면서 헤어졌는데, 이렇게 와서 싸우다 보니까 외려 몸을 아끼는 사람은 죽고, 그냥 이때 죽으나 저때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저는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각오를 하니까 오히려 죽지 않았다는 그런 말을 합디다.

>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향내가 나고
> 발 한 번 한 번 떼 놓는
> 그 움죽거림이 모두 향내가 나야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 가운데서 내 마음을 발견할 수 있나?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왜 필연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하느냐. 우리가 살아서 이 도리를 모른다면, 육체를 가지고 이 도리를 모른다면 거듭거듭 이런 고난에서 허덕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육체가 죽는 것이 열반이 아니죠. 육체를 살려 놓고 저승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승 저승이 없이 회전을 할 수 있어야만 그걸 이름해서 열반경지라고 그럽니다.

고집멸도의 사제법 중에서 고가 고인 줄 아시지 마세요. 여러분은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돼서 이렇게 인간으로까지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 그 습이 많기 때문에 수없이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기 한데 모인 거거든요, 수십억 마리가 인연 따라서. 사생이 인연 따라서 여기 다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인연 따라서 온 나 자체의 그 마음이 꽁지에 꽁지를 물고 자꾸 나오는 걸 나오는 데에다가 다시 놓는다면 좋은데, 고가 고인 줄 안단 말입니다. 내가 공해서 없는데 고라는 것이 어디에 붙을 자리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그건 뭐냐. '나를 성숙시킬 수 있는 수행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고가 고가 아니죠. 거짓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진화시킬 수 있고 성숙시킬 수 있고 나를 해탈시킬 수 있는 과정이 고란 말입니다. 그러면 고가 고가 아니고 그게 수련 과정이요 수행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내가 그렇게 다지고 다지면서 수행을 시키니 이 감사함을 어쩌나.'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고가 없으니 집도 없죠? 집착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고가 없으니까. 모두 놓고 돌아가니까. 집착이 없는데 멸이 어디 있습니까? 멸이 없는데 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니 내가 나를 믿지 않고는 안 되죠.

여러분은 지금 한 군데만 움죽거리지 않게 해도, (다리를 짚으시며) 여기를 한 치만 뻣뻣하게 해도 걸음을 못 걸을 겁니다. 그렇게 움죽거려 주는 내 속의 내 중생, 이 자체가 소중한 줄 알아야 여러분은 성한 다리로 성한 몸으로 다니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몸뚱이 속의 생명체들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그건 한 마음 한 몸이지 두 몸이 아니에요. 그 수십억 마리가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니 거기에서 다 들이고 내니까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잘되는 것도 감사하고 안되는 것도, 고가 고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공부입니다, 인제. 말을 하자면 그때부터 이승 저승을 마음대로 회전하면서, 왕래하면서 진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체험하면서 숙달시키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모두, 당장 앞에 닥치기만 하면 그저 팔자 타령을 합니다. 애들이 공부를 안 해도 "아이고, 내 팔자야!" 또 남편이 속을 좀 썩여도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래?" 몸이 조금만 아파도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이러냐." 이러거든요. 아니, 그건 자기 생각이지 부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7년 12월 13일 국내지원 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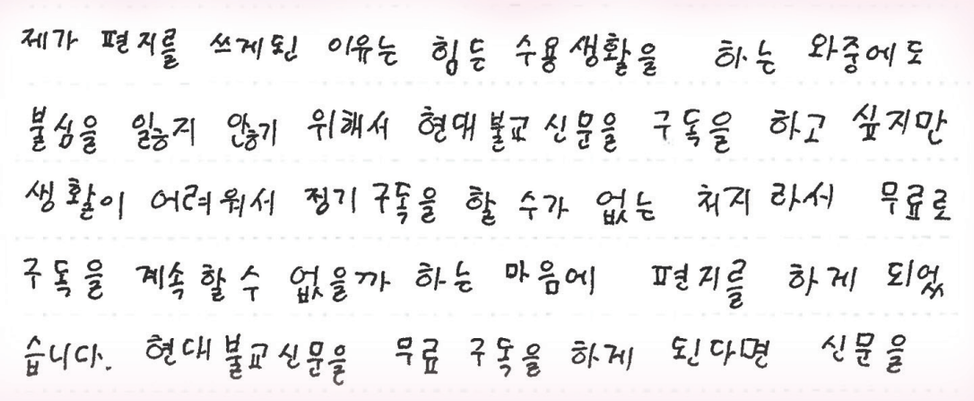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계좌 053-01-269075 (농협,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제가 편지를 쓰게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